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30-012 서대문구 중정로 2가 35번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2층
 130-012 Chungjeong-ro 2 ga, Seodaemun Gu, Seoul, Korea
 Tel: 82-2-366-4016, 392-8252 Fax: 82-2-366-4017
 Internet: <http://witness.peacenet.or.kr> E-mail: mas@peacenet.or.kr

발행: 2000년 10월 14일 '성노예' 관련처벌을 위한 학생들의집행 준비위원회

1999. 10. 04

수신: 조 시 권 교수님

내용: 9월 29일 송악대에서 열린 학생법정 발족식 보고에 관한건

아직도 여류인가 싶더니 가슴을 느낄새도 없이 겨울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와버린 느낌이 듭니다. 언제나 허시는 일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성노예 전범처벌을 위한 국제법정과 함께하는 학생법정 준비위원회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지난 9월 29일 송악대학교에서 부사회 학생모의법정 청사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발족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발족식 진행과정은 도움주셨던 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족식 행사는 다소 늦은 7시 40분에 진행되었습니다. 강덕경 할머니의 모습을 그린 길게그림을 행사장에 다량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행사는 준비위원회 학술분과장 최지원 학생의 개회사로 학원 사자를 알리고 서울지역 유능해분들이 오셔서 여느공인으로 2곡의 문장을 보여주 이이 내빈소개가 있었는데 내빈으로 윤정옥 정대협 대표님, 정진성 신행위 부위원장님, 김현진 사료관 위원장님, 양미경 총무님, 여순주(경신대연구소)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이 문예분과에 있는 조영준 학생의 환영사, 내빈분들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늦어진것에 대해 윤정옥 선생님에서 시간연수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정진성 교수님의 축하인사, 열매전 열었던 현인 학생 '진정과 이성인원' 위로사에 참가했던 오비원대 학생들의 축하편지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늦게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할머니들이 오지 못한 탓으로 김유신 할머니께서 저와 학생들에게 해주신 시(詩)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률분과 박지연 학생의 학생법정 소개와 입시체제 원문보고, 사부분과 박지연 학생의 이후 사업계획 보고등의 있었습니 다. 그리고 사회노래패 '우리나라'에서 오셔서 축하공연 해주셨으며, 마지막으로 발족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 짓고 간단한 다과회와 기념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가 끝난후 진행된 평가회에서는 시간연수와 구체적 인원동원을 위한 조직화에 좀더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였습니다. 성과로는 발족식을 통해 조직의 결속력과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발족식이후 더욱 세심하고 튼튼하게 조직을 정비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할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발족식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충고 부탁드립니다.

10월말에는 학생법정 소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위한 시내선전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일본군 성노예 전범처벌을 위한 2000년 4월 학생모의법정에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308-01-163609 예금주: 정대협윤정옥(조용은행)

2000년 일본군 성노예 국제법정 학생법정 준비위원회